

IBK MAGAZINE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2019. **AUTUMN**

VOL. 15

WM CLASS

토지 보상과 세금,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절세방안을 찾자

SPECIAL COLUMN

금 투자의 목적은
대박이 아니라 '생존'이다

INVESTMENT

4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내 인생의 황금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경제 회복의 수위를 높였고,
한국도 일본에 맞불을 놓으면서
두 나라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꼬이고 있다.
게다가 미·중 간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옮겨붙으면서
참여한 갈등이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으며
주식도, 원·달러 환율도 모두 중심을 잃었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 생각했다.
'흔들리는 게 어디 너희뿐이랴.'
뿌리를 깊게, 단단히 내린 나무처럼
부디 세찬 바람에도 중심을 잃지 않기를...
황금색으로 물든 들판의 곡식처럼
한국 경제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하루빨리 황금기가 찾아오기를 바란다.
지금은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가을이니까.

Words 박영화

Contents

2019. AUTUMN VOL. 15

02 PROLOGUE

내 인생의 황금기

04 SPECIAL COLUMN 1

금 투자의 목적은
대박이 아니라 '생존'이다

08 SPECIAL COLUMN 2

시가 몰고 올 미래 대비해야

12 SPECIAL COLUMN 3

일본의 수출 규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6 INVESTMENT

4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0 WM CLASS

토지 보상과 세금,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절세방안을 찾자

24 WM CENTER

판교WM센터, 천사의 마음으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다

28 TRAVEL

여행의 절정, 호주

34 BRAND STORY

명차의 품격

36 TODAY'S ART

너에게 물들다
생활에 녹아든 패턴
김수지 패턴디자이너

40 BOOK AND MOVIE

낭만적 이상주의자의 환상, 그 너머의 사랑
<위대한 개츠비>

42 IBK FUND

이달의 추천 펀드



발행일 2019년 9월 5일 발행처 IBK기업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2 기획·디자인·제작·인쇄 경성문화사 02-786-2999
<WIN CLASS>는 프리미엄 경제·금융·문화 정보를 담은 <IBK MAGAZINE>의 별본입니다.

<WIN CLASS>의 외부 필자 원고는 IBK기업은행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금값, 연초 이후 25% 넘게 급등

요즘 금값 상승세가 아찔하다. 장기 추세를 보면 지난 2008년 말 금융 위기 이후부터 오르고 있다고 보이는데 특히 연초 이후 상승세가 무서울 정도다. 먼저 국제 금값을 보자. 올 1월 2일 국제 금값은 온스당 1,281달러였는데 지난 8월 7일 1,507달러까지 올랐으니 7개월여 만에 17.6%나 상승했다.

국내 금값은 더 올랐다. 올 1월 2일 g당 4만 6,417원에서 지난 8월 7일 5만 8,109원까지 치솟았다. 약 7개월 동안 25% 넘게 급등한 것이다. 연초 이후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국제 금값보다 8%p 정도 더 오른 것이다.

그렇다면 금값은 왜 이렇게 급등한 것일까. 간단하다. 금을 찾는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그럼, 왜 이렇게 금 수요는 늘어난 걸까. 이에 대한 단적인 답변은 바로 '세월이 수상(?)해서'이다. 지금 전 세계가 모두 '경기 침체'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더 거세지고, 중동 지역의 불안도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유럽 쪽은 경기 부진에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상존하고, 일본의 말도 안 되는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까지 더해졌다. 이렇게 되니 시중에 떠도는 돈들은 더 안전한 곳으로 향하고 바로 이때 '금'이 좋은 피난처가 된 것이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안전자산'이라는 건데 금, 미 국채(달러화), 엔화 등은 위기 때마다 큰 인기를 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금은 다름 아닌 진짜 돈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데 의문을 제기한다. 금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이자 한 푼 받지 못한다. 산업적 수요도 미미하다. 석탄보다도 한참 뒤진다. 경제 공황이나 전쟁 등의 순간에 석유나,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금은 쉽게 수공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수천 년 동안 금은 인류에게 다름 아닌 돈

금 투자의 목적은 대박이 아니라 '생존'이다

기원전 8세기경 소아시아 프리기아 왕국의 최고 자리에 오른 미다스(Midas) 왕은 어린 시절 끔찍한 가난을 겪었다고 한다. 그래서였을까. 미다스 왕은 술의 신 바쿠스에게 "손이 닿는 모든 물건을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라는 아주 노골적인 소원을 빌게 된다. 금 한 돈(3.75g) 가격이 22만 원 넘게 치솟은 요즘, 문득 미다스 왕을 떠올려봤다. 만지면 다 황금으로 바꾸는 미다스 왕의 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1kg짜리 골드바 한 개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다.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금 투자에 나서 볼까?

Words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진 투자컨설팅 대표



이었다. 고대에 웬만큼 똑똑하다고 자신했던 사람들은 모두 금을 만들고 싶어 했다. 일명 '연금술사'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실제 금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특히, 금은 석유와 달리 전 세계에 골고루 매장되어 있다. 그래서 인류의 화폐, 인류의 돈이 됐던 것이다. 미국 달러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로 떠오른 것은 1970년대 이후였다. 그 이전까지 인류의 모든 종이돈 가치는 금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금태환 체제'였다. 그래서 인간의 DNA 속엔 '금은 돈이다'라는 인식이 깊이 박혀 있고, 지금도 세상이 뒤숭숭하고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끼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본능적으로 금을 향해 달려간다. 종이돈보다, 손에 금덩이 하나를 확실하게 쥐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다.

실물금 투자? 아니면 종이금 투자?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실물금'을 사는 것과 일명 '종이금' 투자를 하는 방법이다. 첫째, 실물금 구입은 이미 자산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쉽게 말해 골드바를 사거나 금반지를 사 모으는 방식이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구입할 때 부가세 10%가 붙고, 공임비 등 매매 관련 수수료가 3~5% 정도 또 붙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물금은 구입하는 순간 시장가격 대비 15% 정도를 더 지불해야 하고, 결국 향후 금값이 최소한 15% 넘게

올라야 수익이 난다. 하지만 장점도 있다. 우선 처음 부가세 10%를 내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대폭등을 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고 '슬그머니' 자녀에게 골드바를 건네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아니다. 다만 종종 부가가치세 10%가 아까워서 현금 매입으로 일명 '뒷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는 절대 반대한다. '안전자산'이라는 그 본질 가치를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질 것이다. 실물금이 부담스럽다면 종이금에 투자할 수 있다. 먼저 직접투자인 금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이다.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금 ETF는 국제 금값, 정확히는 금 선물 가격에 맞춰 수익률이 결정되는데 주식처럼 투자하면 된다. 매매 수수료가 실물금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상품인 '골드뱅크'도 있다. 실시간 시세에 맞춰 1g 기준으로 금을 사면되는데 나중에 돈으로 찾아도 되고, 실물로 찾아도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확히는 '실물금과 종이금 중간 투자'쯤 되겠다. 실물금 골드바에 비해 거래단위가 적어 소액투자가 가능한데, 다만 현금 인출의 경우 이익금에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붙는다. 한국거래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금 투자를 할 수 있다. 일명 'KRX 금 투자'인데, 거래소가 운영하는 KRX 금 시장에서 1g 단위로 사고파는 방식이다. 거래할 때는 0.3~0.5%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다만 골드바로 인출할 때는 10%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



지금 전 세계가 모두 '경기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되니 시중에 떠도는 돈들은 더 안전한 곳으로 향하고 바로 이때 '금'이 좋은 피난처가 된 것이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안전자산'이라는 건데 금, 미 국채(달러화), 엔화 등은 위기 때마다 큰 인기를 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향후 금값은? 미국 달러화 가치를 보라

을 하반기에도 금값이 상반기처럼 급등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체크 포인트는 크게 2가지다. 첫째는 올 상반기를 흔들었던 약재들의 소멸 여부다. 가령 미·중 무역 분쟁이 극적 타결된다거나, 유럽의 경기가 되살아나고,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실패하고, 여기에 북한의 비핵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거나 하면 금값은 하락할 것이다. 또한 중국을 위시해 글로벌 경기가 살아난다는 소식이 들려도 금은 다시 뒷방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둘째는, 미국 달러화 가치의 흐름이다. 달러가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흐름을 파악하라는 뜻이다. 종종 "세상에 2개의 태양은 없다"는 말을 한다. 과거 인류의 진짜 돈인 금과 현재 세계 기축통화인 미 달러화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이야기다. 가령 달러 가치가 극단적으로 높아지면(달러 강세) 금값은 하락할 것이다.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면 금은 올 상반기 이상의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이 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준을 압박해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려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몰아치고 있다. 정말 미국 연준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금은 나 홀로 '태양'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금 투자, '대박'이 아닌 '생존'이다

금에 투자하는 목적은 '대박'이 아니라 '생존'이 돼야 한다.金を 적게라도 보유해 최악의 순간 내 존엄성을 지켜내겠다는 '생존'의 마인드가 필수다. 또 하나, 금 투자를 할 때에는 자잘한 변동성을 보고 하면 안 된다. 5년 이상 기간을 잡아야 하고, 당연히 그 정도 목힐 수 있는 자금을 할애해야 한다. 요즘 워낙 언론에서 '금 테크'에 대한 많은 기사를 쏟아내는데, 이런 기사들을 보면 서민들은 금 투자를 해야 할 것만 같은 초조함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금 가격이 대폭등하는 시기가 찾아온다면 그때는 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도 전하고 싶다. 예를 들면 가족과 이웃의 가치 같은 것. 미다스 왕 이야기의 결말은 실은 의외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끝은 다음과 같다. "미다스 왕은 바쿠스 신에게 다시 매달렸다. 물건을 황금으로 바꾸는 능력을 빼앗아 달라고 애원한 것이었다. 결국 그는 다시 평범한 손으로 돌아왔지만 상황은 되돌릴 수 없었다. 자신이 끌어안았던 사랑하는 딸은 이미 황금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WIN CLASS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실물금'을 사는 것과 일명 '종이금' 투자를 하는 방법이다. 첫째, 실물금 구입은 이미 자산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쉽게 말해 골드바를 사거나 금반지를 사 모으는 방식이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구입할 때 부가세 10%가 붙고, 공임비 등 매매 관련 수수료가 3~5% 정도 또 붙는다는 것이다.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지난 7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AI)”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근 20여 년간 한국의 모든 대통령과 면담한 흔치 않은 인사다. 그의 선견지명 또한 예사롭지 않다. 그는 1998년에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한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으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브로드밴드(초고속인터넷)”라고 조언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온라인게임 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손 회장은 2019년 지금 이 시기에 왜 ‘AI’를 꼭 짚어 강조했을까.

Words 임지선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말한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순간을 ‘특이점’이라고 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가 몰고 올 미래 대비해야

손정의가 투자한 기업의 공통 키워드는 AI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1호’부터 보자. 손 회장의 비전펀드 1호는 1,000억 달러로 세계 최대 사모펀드로 기록돼 있다. 비전펀드 1호가 투자한 기업들은 미국의 차량 공유업체 우버, 중국 디디추싱, 싱가포르 그랩, 한국의 쿠팡 등이다. 이들 기업들의 키워드는 ‘데이터’이다. 승차공유, 온라인 마켓, 사물인터넷(IoT) 등 모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데이터는 AI가 스스로 학습해서 성장하고 기능하도록 만드는 ‘필수 재료’이다. 손 회장은 AI 시대에 필수 하드웨어 기술인 반도체 회사도 인수했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이 대표적인 예이다. 손 회장은 9월부터 운용할 비전펀드 2호도 AI와 관련한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하는 기업도 AI, 만나는 사람마다 AI를 입에 올리는 손 회장은 사실 AI 때문에 은퇴마저 반복했다. 그는 예정된 은퇴 시기를 1년 앞둔 2016년 “욕심이 생겼다.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전환)의 새로운 비전을 봤다”고 말했다. 손 회장이 이 말을 하고서 사들인 회사가 반도체를 설계하는 영국의 ARM이다. ARM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설계 회사이다. 그는 ARM 인수를 단순히 ‘기업 인수합병’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ARM 인수를 ‘패러다임 인수합병’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손 회장은 “특이점(Singularity·싱귤러리티)이 오고 있다는 것은 나의 기본적인 비전”이라고 밝혔다.

특이점이란, AI가 비약적으로 발달해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순간을 의미한다. 미국의 수학자 존 폰 노이만이 처음 언급한 이 용어는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이 2045년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담은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통해 대중적으로 쓰이게 됐다.

손 회장이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AI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AI 관련 시장 규모 전망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가트너는 올해 AI 관련 시장을 1조 9,010억 달러로 추산했고, 2020년까지 두 배에 가까운 3조 9,23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AI에 투자하지 않으면 지금 1등인 기업도 미래에 뒤쳐질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지난해 AI 연구에 앞선 기업은 2030년까지 지금보다 122% 많은 경제적 가치



를 창출하지만 AI 연구에 뒤진 하위 기업은 2030년 현금 창출이 23% 하락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손 회장이 아니어도 세계 각국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열 AI 기술 개발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들이 내는 보도자료를 보면 최근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간 내용이 'AI'이다.

기업들의 준비는 어디까지

국내 대기업들은 세계 곳곳에 AI 연구센터를 속속 설립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7년 11월 미래사업 발굴 조직인 삼성리서치 산하에 AI센터를 신설했고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



리, 영국 케임브리지, 캐나다 토론토·몬트리올, 러시아 모스크바, 미국 뉴욕 등 한국 포함 7개 AI 연구센터를 만들었다. 삼성은 2020년까지 AI 선행 연구개발 인력을 1,000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캐나다 토론토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연 LG전자도 지난 5월 말 인공지능망 분야의 전문가인 다린 그라함 박사를 영입해 소장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LG사이언스파크 산하 AI 조직인 'AI 담당'을 신설해 중장기 AI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힘을 쓰고 있다. 가장 AI가 눈앞에 다가온 분야는 자율주행차이다. 이 때문에 현대차도 미래 차 산업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대차는 전략기술본부 산하에 '인공지능리서치(AIR) 랩'에서 생산효율화, 미래차 개발, 모빌리티 서비스 등의 과제를 연구 중이며 음성인식, 영상인식 등 인공지능 관련 8개 분야에서 경력직을 상시 채용할 계획이다. IT기업들도 AI 연구와 투자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2013년 AI, 로봇틱스 등을 연구하는 네이버랩스를 설립했다. 2017년 6월에는 유럽 최대 AI 연구소인 프랑크 제록스리서치센터유럽(현 네이버랩스유럽)을 인수하기도 했다. 카카오도 2017년 2월 AI 기술 전문 회사 카카오브레인을 만들어 AI 연구를 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보다 더 앞서서 AI 연구에 투자했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승환 책임연구원이 최근 낸 보고서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 연구역량 분석 및 시사점'을 보면,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알파벳, 페이스북, 인텔, 삼성 전자, 중국 텐센트 7개 글로벌 기업 가운데 IBM은 AI 연구 관련 학술연구에서 단연 압도적이었다. IBM의 누적 학술 연구 수는 2,275건, MS는 1,996건, 알파벳은 745건이었다. 이에 비해 삼성전자는 498건이었다. 차량공유업체 우버는 2017년부터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캐나다 토론토대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엔비디아도 지난해 토론토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페이스북도 2년 전부터 몬트리올대 등과 함께 컴퓨터 마우스를 대체할 보이스 기능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다.

내 행동을 나보다 더 잘 아는 AI

그렇다면 AI 시대가 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AI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이미 산업 전반에 도입된 산업용 자동화 로봇이다. 기계가 제품을 조립하고, 포장하는 형태 말이다. 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은 이세돌을 이긴 바둑 AI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AI 지능이 인간 지능보다 폭발적으로 발전하면 금융, 제조업, 우주탐사, 헬스케어, 재판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의 사용 패턴을 이해해 인간의 의도까지 이해하는 경지까지 이르는 게 바로 '초지능 AI 시대'이다.

예를 들어 금융에 AI가 도입되면, 수많은 시세 관련 데이터, 관련된 산업계 뉴스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투자 결정을 AI가 할 수 있다. 투자자문사, 펀드매니저 등을 AI가 모두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관련된 일자리가 모두 AI로 대체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가까운 미래에 AI로 세상의 변혁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처럼 이번 세기 안에 초지능 AI가 나타날 것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년 안에 인간 지능보다 뛰어난 AI가 등장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인간의 의도를 인간보다 더 잘 아는 AI의 등장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중요한 점은 AI가 우리의 실생활을 점점 더 빨리 바꿀 것이라는 점이다. AI는 미래 먹거리 원천이지만 한편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질문을 던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손희장의 말대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할 곳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AI)"이다. WIN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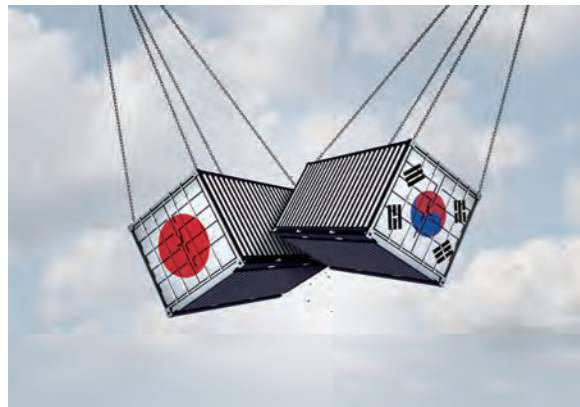
AI 지능이 인간 지능보다 폭발적으로 발전하면 금융, 제조업, 우주탐사, 헬스케어, 재판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의 사용 패턴을 이해해 인간의 의도까지 이해하는 경지까지 이르는 게 바로 '초지능 AI 시대'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난 7월 1일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세 가지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차세대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것은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와 개발에 차질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원인과 현 상황,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Words 박정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



일본의 경제 보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은 세 가지 소재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필수 소재들이다. 포토 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소재로 두 가지 중 하나만 없어도 당장 반도체 생산이 어려워진다. 포토 레지스트의 경우 일본의 의존도는 91.9%, 불화수소는 43.9%에 이르며, 스마트폰, TV, 모니터에 사용되는 폴리이미드도 93.7%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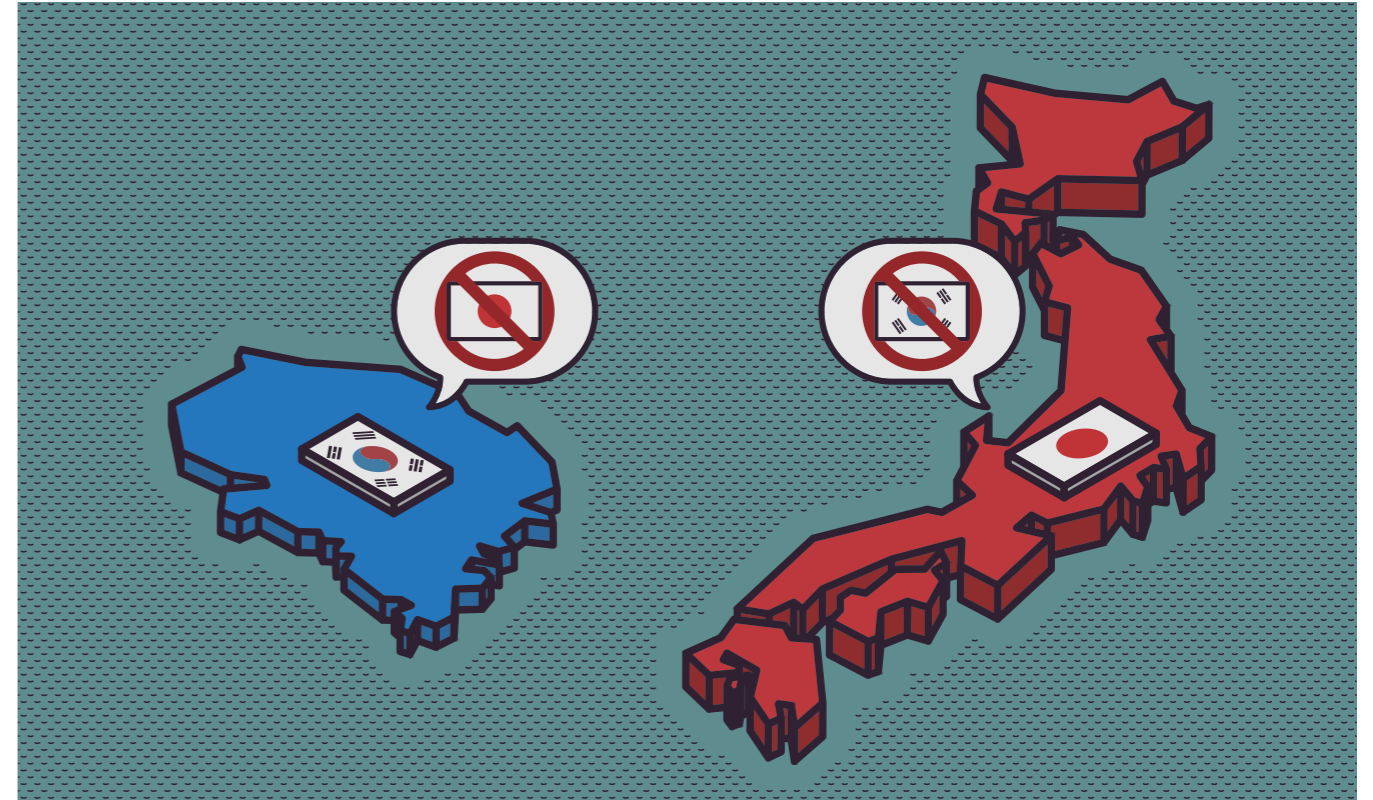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그 정보를 처리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할 수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향후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어서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도 2030년까지 이 부문에서 1위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133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쓰이는 포토 레지스트가 이번 수출 규제로 막힌 것이다. 이제 막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려는데 시작부터 먹구름이 끼 버린 상황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화이트리스트란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를 통칭하는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교역 국가 리스트를 의미한다. 수출국을 A, B, C, D 4개 그룹으로 나눠서 다르게 대우하는데 A그룹에는 우리나라를 뺀 기존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한국은 한 단계 떨어진 B그룹으로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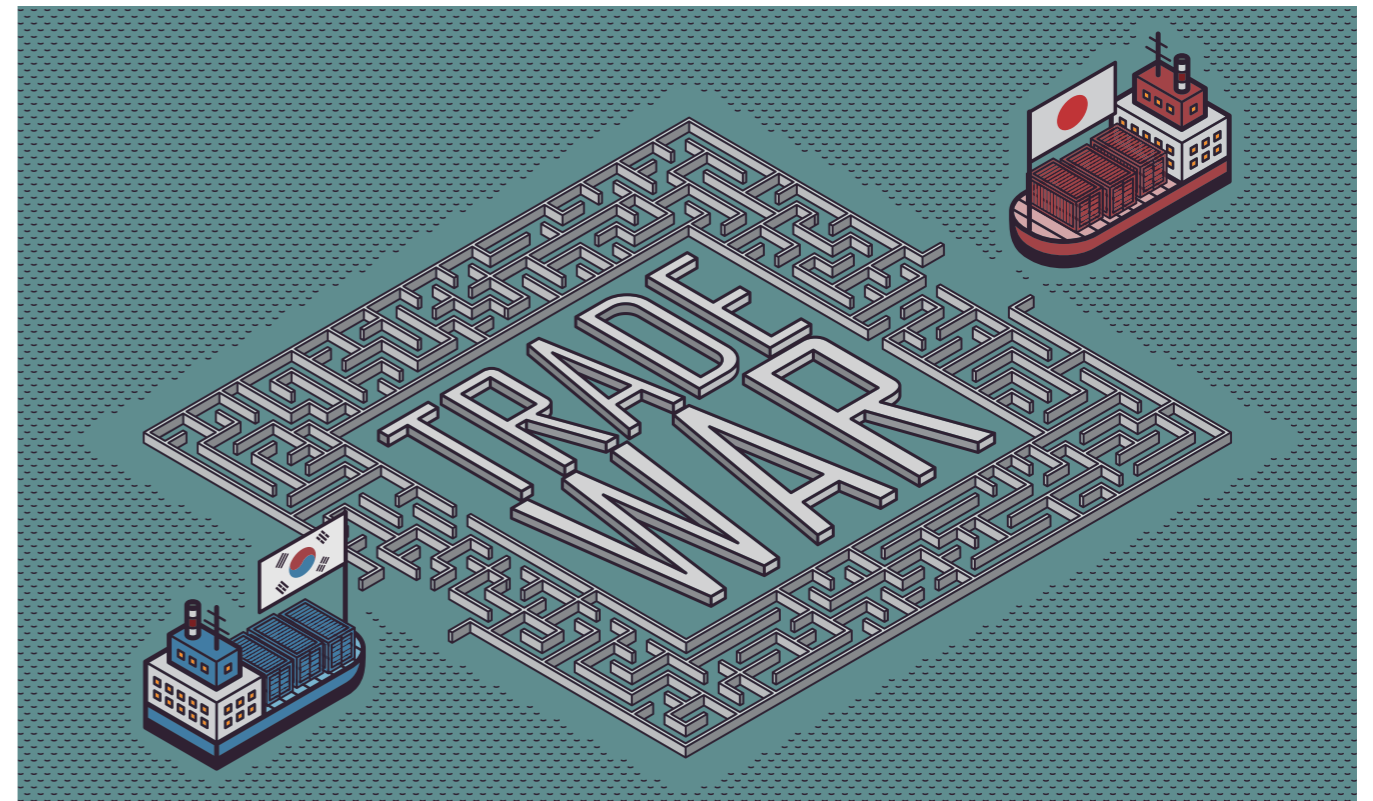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질 경우 강화된 수출 규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총 1,100여 개에 해당한다. 그동안 화이트리스트 국가에는 전략물자 중에 덜 민감한 품목 857개의 수출 허가를 간단하게 처리했지만,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857개 품목도 원칙적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 중 핵심 전략품목으로 100개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하는 이유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2018년 말,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꼽힌다. 이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화이트리스트란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를 통칭하는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교역 국가 리스트를 의미한다.





미 국내 대기업들은 2018년 11월 일본이 사흘간 불화수소 통관을 중단하자 경제 보복의 징조를 감지하고 관련 당국에 이러한 상황을 공유한 바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원만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통상 규제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양국 간에 합의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대법원이 전범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새로운 청구권을 일본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특히 민감했던 이유는 만약에 개인 청구권이 허용되게 되면 전쟁 후 대부분의 아시아 피해 국가들과 국가 대 국가 간의 경제 협력 방식으로 무마해온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질 수도 있고, 앞으로 추진할 북·일 수교에서도 개인청구권이 새로운 이슈로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이전부터 이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 북·미 간의 외교 문제에서 일본이 배제되고 있는 사안 또한 이번 수출 규제 문제가 불거지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일본 수출 규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은 맞대응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이후에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으로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포함시켰지만, 현재 일본이 삭제했기 때문에 우리도 쌍방조치로 당연히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의 대응방안

최근 일본 수출 규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은 맞대응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진행하고 있다.

어떤 나라든 주요 선진국에는 화이트리스트가 있다. 우리도 29개 나라의 화이트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이후에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으로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포함시켰지만, 현재 일본이 삭제했기 때문에 우리도 쌍방조치로 당연히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크게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일본 관련 기업 리스트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이때만 해도 이번 불매운동이 과거처럼 오래 가지 못할 거란 분석이 많았다. 그러던 중에 유니클로 임원이나 일본 측 인사들이 불매운동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하면서 이 운동에 불을 지폈다.

일본 여행의 수요 또한 크게 감소했다. 신규 예약자 수는 전년 대비 70~80% 줄어들었다. 일본 내부에서는 방사능 공포로 한국인 관광객이 뚝 끊겼던 동일본 대지진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관광객 4명 중 1명이 한국인인데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을 찾은 한국인의 수는 753만 9,000명으로 전체 일본 방문객 3,119만 2,000명의 24.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 비중이 큰 도시일수록 숙박, 식당, 교통 등의 분야에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상황이다.

한·일 간 무역 분쟁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이웃집과 사이가 벌어질 경우, 양쪽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 우리 기업들의 피해 못지않게 일본 기업들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규제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스텔라케미파, JSR코퍼레이션 등 일본 소재 업체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이후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스텔라케미파의 경우 불화수소로 연 매출이 200억 엔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올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한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비중 있는 경제대국이기 여타 국가 역시 피해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반도체가 전 세계 판매량의 60~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애플, 아마존,

퀄컴 등 글로벌 기업들은 삼성에 반도체 공급 문제가 없는지 거듭 문의하고 있다고 한다. 즉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애플에서 만드는 스마트폰 값도 오르고, 델에서 만드는 노트북 가격도 올라가게 된다. 또 구글이나 아마존이 서버를 확충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해외 언론 역시 한국과 일본의 통상 분쟁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한·일 간 무역 분쟁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세계사적으로 인접 국가 간에 사이가 좋은 나라를 찾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인접 국가는 가장 빈번히 교류 협력을 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번에 수출 규제 대상으로 선정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분 역시 일본으로부터 주요 부품·소재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이를 가공·완성해 완제품 형태로 판매해왔다. 일본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 속에서 수출을 진행해온 것이다.

최근 전 세계가 '보호무역' 기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 기조가 크게 강화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는 이란산 원유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제 원유 가격 동향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거기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더해진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할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러한 두 국가가 지금 국제적인 경제 불황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WIN CLASS



Economic and Financial Market Outlook

4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환율 전쟁,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금, 달러, 채권 등 안전자산의 인기가 연일 치솟고 있다. 당분간은 이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에 나서려면 여러 변수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Words IBK투자증권 투자분석부

1% 기준금리를 향해

무역 규제에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지부진하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여름 이후 다시 고조되는 한편,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무역 규제를 발표했다. 8월 28일부터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시행되면서 국내 경기 전망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배가됐다. 그 때문에 글로벌 채권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종고를 겪는 한국의 금리 하락폭은 더욱 심한 편이다. 안타깝게도 당장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 기대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아 금융시

장의 심리는 견잡을 수 없이 안전자산 선호를 지지하고 있다. 정부의 대처는 추경을 연말까지 전량 집행하겠다는 발표와 남북 경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정도이다. WTO 제소 역시 국제여론을 일본에 불리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시일이 2년 내외가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해결책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결국 재정 측면에서 기대할 만한 부분이 당장 별로 없다는 것은 통화정책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에도 일본의 수출 규제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 늘 시장보다 느리게 움직였던 한국은행조차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단행한 만큼, 향후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대응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최근 전 구간의 국고채 금리가 1.20%대 이하로 하락한 것은 펀더멘털 부진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이러한 통화정책 기대감 확대가 반영된 이유다.

연내 추가 인하가 기정사실로 됐지만 시장금리의 목적지는 이번 통화정책 사이클에서의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어디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역사적으로 국내 최저 기준금리는 2016년 1.25%였다.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대외 무역 및 주요 선진국 여건과 국내 펀더멘털은 지금이 훨씬 좋지 않다. 미국과 ECB 등 주요 중앙은행의 완화 기조도 이제 막 시작된 터라 내외금리차 확대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통화당국의 부담감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1%까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가능성은 적더라도, 정책당국을 항상 앞서 반영하는 금융시장은 1% 기준금리에 베풀리며 연내 금리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시를 누르는 대외 리스크

4분기에는 지속되는 대외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면서 소폭이나마 KOSPI의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까지의 부진한 기업 실적과 동시 이후의 실적 개선 기대가 되살아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역시 다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개선의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사이클의 진폭이 줄어든 만큼 경기 자체가 크게 둔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역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경기 흐름이 쉽게 돌아서기 어렵다. 하지만 신흥국부터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비교적 견고한 미국 경기가 글로벌 경기의 하단을 지지해 줄 것으로 판단한다.

<표 1> 1% 기준금리를 향한 베풀기로 금리 추가 하락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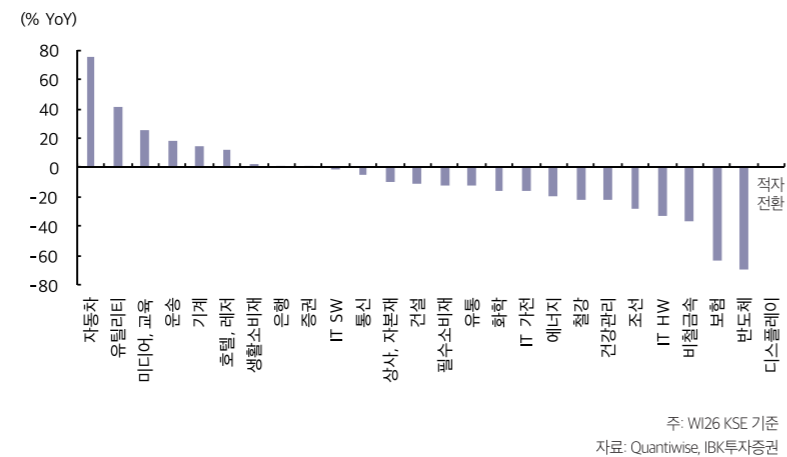


4분기에는 지갑도둑
시장에 영향을 미친
미·중 무역분쟁과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 및
실적 개선 기대가 반영돼
큰 폭은 아니지만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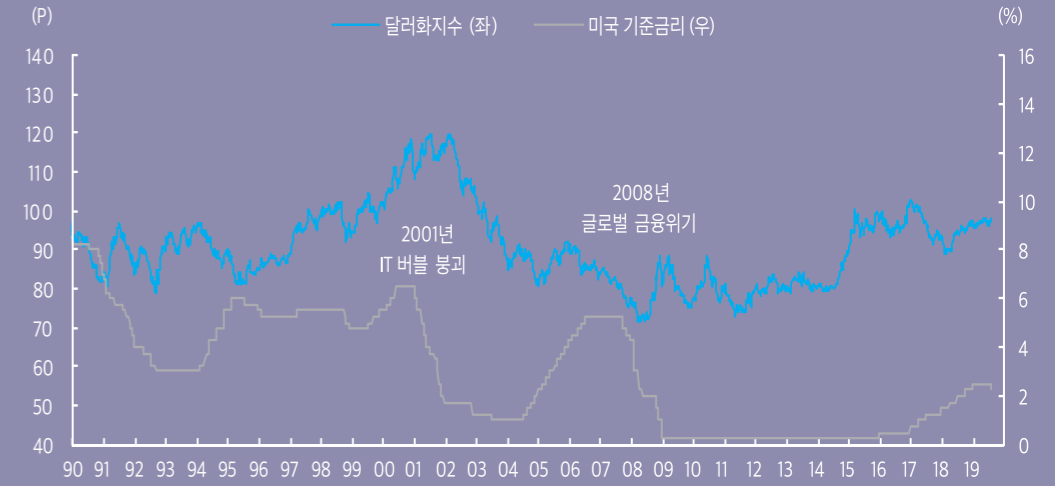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3개월여 만에 다시 협상을 재개했지만 양국의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등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중국은 포치(달러당 7위안을 상회)를 공식화했으며 희토류 무기화 카드를 내밀었다. 즉 두 국가의 갈등은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트럼프의 대선 레이스를 생각해 본다면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유리하게 마무리 짓기 위한 방책이 4분기를 전후해 제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3분기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대외 리스크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하면서 1,200원을 상회했다. 이는 기업 실적에 긍정적이긴 하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둔화된 교역량의 영향과 함께 일본발 리스크에 따른 실질적 영향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적이 미약하거나 개선되는 모습은 3분기보다는 4분기에 나타나면서 앞으로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금융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에 KOSPI가 1,900선을 하회하는 등センチ멘트가 펀더멘털보다 더욱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다. 즉 리스크의 상존으로 언제든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4분기에는 지갑도둑 시장에 영향을 미친 미·중 무역분쟁과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 및 실적 개선 기대가 반영돼 큰 폭은 아니지만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다시 위험자산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2> 섹터별 2019년 3분기 영업이익(예상): 자동차, 유틸리티, 미디어/교육, 운송, 기계, 호텔/레저 업종에 주목



Stock Market Favorable Factor

<표 3> 미국 달러화지수와 기준금리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달러화 강세 지속될까?

지금 달러화에 투자해도 늦지 않을까? 1년 이상 투자 기간을 생각한다면 현재 달러화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달러화의 강세와 약세 요인이 상쇄되면서 달러화의 추가 강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0년에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올해 달러화 강세를 견인했던 주요 요인들은 유럽 경기 둔화와 브렉시트 등 유럽 정치적 불안에 따른 유로화 약세, 상대적으로 견고했던 미국 경제, 글로벌 무역분쟁과 경기 둔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이다. 달러화 강세를 견인했던 이 같은 재료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달러화 가치를 뒷받침할 것이다. 그러나 달러화 가치가 추가로 크게 높아지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의 추가 상승을 제한할 요인들도 산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정책을 시작했다라는 점이 달러화 강세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한 국가의 금리 인하는 자국 통화 약세 요인이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달러화 강세를 제한하는 재료이다. 또 다른 안전통화인 엔화가 상대적으로 선호되면서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도 달러화 강세 제한 요인이다. 종합하면 달러화 강세를 견인했던 요인들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달러화 하락도 제한되겠지만 추가 강세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돼 달러화는 한 동안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만약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달러화는 안전자산으로 선호되면서 가치가 크게 등락할 여지는 있다.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던 달러화가 2020년에는 약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0년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러화 약세 정책을 좀 더 강하게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성장률이 더 악화됨에 따라 연준의 통화 완화정책의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달러화가 약세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이다. WIN CLASS



토지 보상과 세금,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절세방안을 찾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앞으로 3년간 각종 공익사업으로 약 9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토지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약 30조 원이며 이르면 올 연말부터 풀릴 계획으로 이는 2000년대 중반 2기 신도시 조성 이후 최대 규모이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부동산을 수용하게 되며, 토지소유자는 보상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동일한 부동산도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금을 덜 낼 수도 더 낼 수도 있다.

토지 보상금 수령시기 조정을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예를 들어 20년간 보유 중인 임야가 수용되어 10억 원의 토지 보상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보상금을 한 번에 받을 때와 해를 달리하여 필지별로 분할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크게 차이가 난다. 보상기간에 따라 감면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고(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는 1년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양도소득세 적용세율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연도별로 분할 수령하는 것이 이득이다.

<표 1>의 사례와 같이 해를 달리해서 수령만 해도 자진 납부세액이 13% 이상 감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과세세목과 세제혜택 확인은 필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 외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철거를 조건으로 건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사업에 이용한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토지 보상금 외 추가로 이전비를 받는 경우

보상토지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지장물 중 기계 장치 및 비품 등에 대한 시설 이전비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전비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세 납부대상이 되고 이때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므로 사업소득금액 산정 시 반영해야 한다.

토지 보상금 외 추가로 이장비를 받는 경우

보상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이장비를 보상받기도 한

<표 1> 토지 보상 양도소득세 예상세액 비교
(보상금 10억 원, 취득가액 2억 원, 20년 보유, 공익사업감면 적용, 지방소득세 별도)

구분	<Case 1>		<Case 2>	
	'19년 10억원 수령	'19년 5억원 수령	'20년 5억원 수령	
양도가액	1,000,000,000	500,000,000	500,000,000	
취득가액(-)	2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양도차익	800,000,000	400,000,000	4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30%(-)	240,000,000	120,000,000	120,000,000	
양도소득금액	560,000,000	280,000,000	280,000,00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557,500,000	277,500,000	277,500,000	
양도소득세율	42%	38%	38%	
산출세액	198,750,000	86,050,000	86,050,000	
세액감면(10%)(-)	19,875,000	8,605,000	8,605,000	
농특세(+)	3,975,000	1,721,000	1,721,000	
자진납부세액	182,850,000	79,166,000	79,166,000	
합계	182,850,000	158,332,000(13%)	24,518,000원 절세	



토지 보상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절세방안에 대해 미리 알아 두어야 소중한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

Words 윤정원 WM사업부 세무사

다. 이장비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되고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나, 공익사업자가 분묘이전비로 토지 보상법에 책정된 실비상당액의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사례금인지 아니면 실비상당의 보상금인지는 지급 사유와 지급조건, 약정 등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또한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보상토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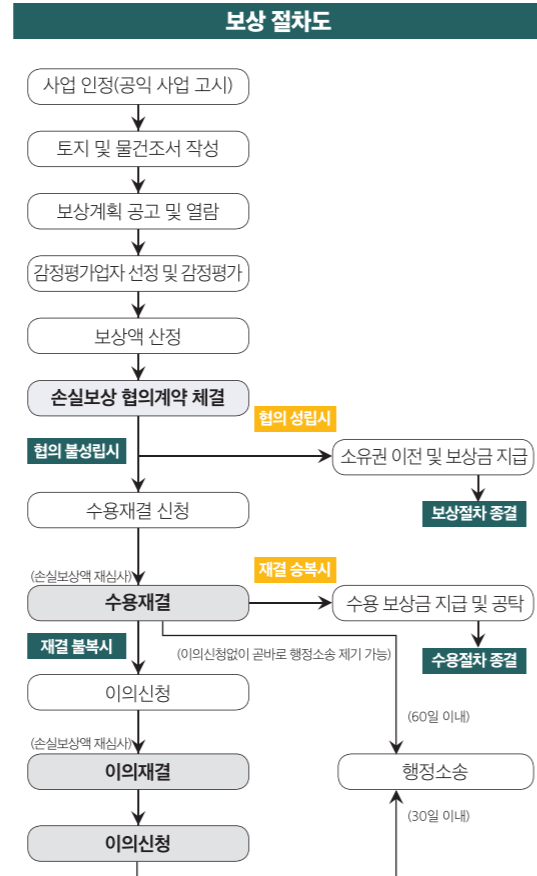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이다. 양도 당시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17.8.3 이후 조정지역 취득분은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비과세(9억 원 초과분은 과세)된다.

주택뿐 아니라 주택정착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 내의 부수토지도 비과세가 되므로 주택정착 면적의 크기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농기구 창고가 주택과 붙어 있어 주택으로 인정받는다면 주택정착 면적이 늘어나고 비과세 되는 부수토지도 늘어나게 되므로 철거되기 전에 현장사진 확보 등 증빙자료를 사전에 구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해외거주자

토지 보상 대상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등 비거주자인 경우도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거주자와 달리 비거주자가 LH공사 등 내국 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낮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나라별로 거주지국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이 다르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한국에서 낸 양도소득세를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처럼 토지 보상금과 관련된 세금종류 및 절세 포인트가 다양하므로 아래의 체크 포인트 등을 활용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토지 보상금 절세전략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WM CLASS**



Check Point

토지 보상금 관련 절세 체크 포인트 및 절세 전략

체크 포인트	절세 전략
소유부동산을 국가에 수용당하는 것인가?	▶ 양도소득세의 10% 감면 (채권보상은 15%, 만기보유 시 30~40% 감면)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수용당했는가?	▶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농특세 없음)
수용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가?	▶ 양도가액 기준으로 9억 원까지 비과세(부수토지 포함)
수용되는 부동산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인가?	▶ 시세차익의 6~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신청을 했는가?	▶ 납부할 양도세의 50%(양도세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초과금액)를 2개월 이내에 납부 가능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자경농지는 2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가?	▶ 일정요건 충족하는 자가 대체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자녀 등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주거나 부동산을 자녀 등의 명의로 취득하려고 하는가?	▶ ① 증여세 : 10년 단위의 증여플랜 필요 ② 보상금 : 사용자 세무조사 대비
보상금을 금융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가?	▶ 비과세·분리과세·저과표 금융상품 활용 및 귀속자 분산 및 전문PB와의 상담을 통한 포트폴리오 설계
보상금을 수령한 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세(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증여를 활용)

IBK기업은행 WM사업부는 국세청 및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세무 전문가**와 **부동산 전문가**들이 토지 보상 관련 세무/부동산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무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윤정원 세무사 (02)2031-5700	김남훈 세무사 (02)2031-5449	박선희 세무사 (02)729-6097	최정기 세무사 (02)729-6221	김연화 차장 (02)729-7189	조성철 과장 (02)729-6954

권효진 대리

조정하 부센터장

이상은 대리

고은영 팀장

강민구 센터장

판교WM센터
천사의 마음으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다

유능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고 단원들의 연주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룰 때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한다.
이처럼 영업도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량과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동시에 팀 전체와 호흡을 맞추어 나갈 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센터장을 존경하는 팀원들과 그런 팀원들에게 무한신뢰를 보이는 센터장.
판교WM센터는 이미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다.

Words 박영화 Photographs 고인순



01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는
첨단연구단지, 판교**

고층 빌딩이 즐비한 모습에서 판교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는 2005년부터 성남시 상평동 일대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조성한 첨단연구단지,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logy 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 NT(Nano Technology) 및 융합기술의 집약체다. 이곳에는 카카오, 엔씨소프트, 블루홀, 메디포스트 등 국내 유수의 IT·게임·바이오 분야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카이스트 등 첨단 기술 관련 연구기관도 입주해 있다. 현재 판교테크노밸리의 입주 기업은 1,300여 개, 임직원은 7만여 명에 달하며 거대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노른자 지역에 위치한 금융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한 건 당연지사. 더군다나 판교 내 기업들의 문턱이 높은 편이어서 기업을 방문하기 전에 업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연구가 뒷받침돼야만 한다. 강민구 센터장은 판교WM센터에 처음 발령받았을 당시의 고충을 털어놨다.

“무조건 찾아가는 영업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

려웠죠. 고객의 마음을 열기 위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강민구 센터장을 비롯한 판교WM센터 직원들은 판교 지역과 입주한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본부 내 25곳의 영업점에서 기업고객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수시로 만났다. 주말에도 영업점 직원들과 판교에 입주한 기업 대표들이 함께하는 모임에 참석해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빠르게 핵심만!

또 천사의 마음으로!

강민구 센터장이 판교에서 느낀 첫인상은 바로 ‘젊은 대표가 많다는 것’. 이곳은 지역 특성상 개인고객보다는 기업고객이 많고, 대부분이 IT 기반의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라 보니 대표의 나이가 젊은 편이다. 정장보다는 캐주얼 복장을, 신문보다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게 익숙한 세대인 것이다.

“고객님 대부분이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금융 컨설팅을 받으시니깐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비교하실 수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02



판교 지역 고객들은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편이어서 그들보다 더 정확하게 금융 상품을 알고 있지 않으면 대응하기 쉽지 않다. 조정하 부센터장은 고객에게 금융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시장의 변화를 꿰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벌써 세 번째 WM센터 개설준비위원으로 활약한 강민구 센터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기존 고객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MGM 마케팅이 주요한 영업 전략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마케팅 전략은 고객에 대한 진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객님은 똑똑한 직원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착한 직원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판교WM센터의 영업코드가 1004거든요. 정말 신기하고 운명 같아요. 고객에게도 또 직원들에게도 천사 같은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판교WM센터

판교WM센터는 2018년 11월 27일 개점했으니 이제 막 9개월을 보냈다. 물론 강민구 센터장과 조정하 부센터장 등이 개설준비위원으로 판교WM센터 인근 오피스텔에서 시작한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1년이 갓 지났다. 동고동락하며 개점 준비를 함께한 탓에 끈끈한 의리와 정으로 뭉친 판교WM센터의 분위기는 좋을 수밖에. 좋은 분위기는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 판교WM센터는 이미 상반기보다 빠른 속도로 8월 초 수익증권 목표를 100%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센터 직원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부동산 세미나, DM 발송 등을 진행해 고객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경동강원지역 본부가 주 활동무대이다 보니 동해, 속초 등 강원도 지역까지도 영업을 하러 가곤 합니다.” 조정하 부센터장의 말에 공감하며 고은영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다.

“IBK기업은행에 WM센터와 영업점이 함께 고객을 관리하는 공동관리고객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상품에 대한 제안이나 자산관리는 WM센터에 정보가 더 많다 보니 영업점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함께 고객을 만나 영

업을 합니다. 윈윈하는 거죠.” 개점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제는 완벽한 하모니로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판교WM센터. 이는 훌륭한 지휘자와 연주자가 서로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갖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조정하 부센터장은 강민구 센터장을 ‘완벽한 지휘자’에 비유했다. “센터장님이 직원들에게 자상하게 대해 주시니까 직원들이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자유롭게 해주시면서도 위기가 있을 때는 나서서 해결해주시곤 합니다.” 강민구 센터장은 판교WM센터의 좋은 분위기를 직원들의 공으로 돌렸다. “다들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거죠. 덕분에 저는 마음 놓고 일합니다.” 판교WM센터의 성공 스토리는 강민구 센터장과 직원들의 믿음과 화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의 완벽한 하모니가 계속되는 한 판교WM센터에는 항상 즐거운 소식으로 가득할 것만 같다. 공연장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음악처럼. WIN CLASS

- 01 —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판교WM센터의 직원들
- 02 — 세 곳의 WM센터 개설준비위원으로 활약한 강민구 센터장
- 03 — 고객과의 상담이 이뤄지는 상담창구
- 04 — 고층 빌딩이 즐비한 판교테크노밸리





Australia & Cruise

여행의 절정

호주

시차는 한 시간, 계절은 우리나라와 반대, 비행시간은 10시간 정도 걸리며 240볼트의 전압 사용으로 여행 시 어댑터를 꼭 챙겨야 하는 익숙한 듯 낯선 이곳, 바로 호주다. 나의 두발은 지금 온전히 호주를 딛고 서 있다.

Words **고성진 여행 칼럼니스트**(toursesang1@naver.com)





Sydney Tour 1

인천국제공항에 비해 작고 아담한 시드니국제공항.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 호주의 첫인상을 말해주는 듯하다. 공항 터미널을 지나 게이트를 통과하자 보이는 호주의 풍경, 양털 구름 사이로 잡지 화보에서나 볼 듯한 파란 하늘과 마주하게 된다.

8박 10일의 일정. 크루즈에 승선하기 전 반나절은 시드니의 유명한 여행지를 둘러보기로 했다. 독특한 풍광을 자랑하는 시드니의 비치인 라페루즈와 베어 아일랜드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2>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시드니 도심 전체와 항만,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릿지를 조망할 수 있는 시드니타워전망대는 시드니를 찾는 여행객이라면 반드시 둘러볼 만한 곳이다. 시드니타워전망대와 스카이워크는 피트 스트리트와 마켓 스트리트의 코너에 있는 웨스트필드 쇼핑센터 쪽에 위치해 있다. 침탑 아래부터 타워까지 높이는 309m로 레스토랑, 커피라운지, 2개의 통신 전송

레벨 및 3개의 플랜트 레벨이 있다. 연중무휴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서 즐기는 최고의 경관을 보는 건 언제라도 가능하다.

크루즈 승선을 위해 터미널로 이동한다. 영국계 선사인 P&O CRUISES의 'PACIFIC EXPLORER'는 77,441t으로 1,998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11층의 객실 데크로 이루어져 있다. 캐빈에 다다라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발코니 뷰가 주는 액자 같은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시드니를 한눈에 품은 격한 감동은 이내 나를 뱃머리로 이끌고 있다.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브릿지를 통과하며 울려 퍼지는 기적소리는 승객들의 환호성과 어우러져 어느 오케스트라의 합주와 견줄만하다.

둘째 날은 전일 항해 일정이라 시간과 장소를 잘 선택해야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만족스러운 뷔페로 조식을 마친 후 갑판으로 향했다. 눈앞에 펼쳐진 워터파크. 쌀쌀한 날씨에 엄두도 못 내는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시퍼런 입

술도 아랑곳 하지 않고 실 새 없이 슬라이드에 미끄러져 내려온다. 캡틴의 다급한 목소리가 선 내 스피커로 흘러나오자 승객들이 우왕좌왕 자리를 찾아 이동한다. 거대한 물살을 가르며 수면 위로 수십 마리의 돌고래 떼가 솟구치고 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내질렀다. 크루즈에서의 둘째 날은 파티가 열린다. 테마는 1920년대의 <위대한 개츠비>이다. 이미 자리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만석이다. 드레스코드는 블랙. 신나는 음악과 춤, 생각보다 매력적인 경험이다.

셋째 날 아침, 'PACIFIC EXPLORER'의 뱃머리가 기항지인 모든 아일랜드를 향해 있다. 호주 브리즈번 동쪽에 있는 이곳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모래 섬이다. 맑고 투명한 바다와 고운 모래사막, 돌고래를 만날 수 있는 휴양지이다. 하얀 백사장과 맞닿아 있는 선착장에 내리니 펠리컨이 길고 큰 입을 흔들며 반겨준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신청해서 즐길 수 있는데, 고래와칭, 사륜바이크, 샌드보드, 난파선스노클링, 투명카약, 블루라군 투어 등 그 종류만도 수십 개에 달한다. 모래로 이루어진 섬에 왔으니 샌드보딩을 신청했다. 샌드보딩을 하기 위해서는 널판때기를 들고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언덕으로 등산 아닌 등산을 해야 한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른다. 바람과 모래를 가르며 내려오다 보면 비명이 절로 나온다. 온몸과 얼굴에는 모래 범벅. 물로 입을 헹구니 그제야 다시 신비스러운 사막 언덕이 눈에 들어온다.

넷째 날 아침, 크루즈에서의 여행이 끝나가는 게 아쉬워



01 — P&O CRUISES에서는 시드니의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상 액티비티도 체험할 수 있다.
02 — 세계적인 럭셔리 크루즈 P&O CRUISES에서 휴식 중인 사람들
03 — 크루즈에서 영화 등 다양한 문화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
04 — 사암 절벽, 숲지대, 폭포 및 유칼립투스숲이 펼쳐지는 블루마운틴

헛헛한 기분이 들었다. 데크 위 대형스크린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맥주 한 잔을 마시는데, 이 느낌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크루즈에서의 마지막 파티를 준비한다. 신나는 비트와 사람들의 그루브에 흥이 절로 난다. 멋진 공연을 감상하고 식당에서 완벽한 디너까지 즐기고 난 뒤에야 실감했다. 내일이면 크루즈에서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크루즈에서 시간을 추억하며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Sydney Tour 2

항해를 마친 PACIFIC EXPLORER에 작별 인사를 건넸다. 5일째 되는 날부터는 시드니 지상 투어가 기다리고 있다. 선착장에서 기다리던 버스에 올라타 동화책에나 나올법한 블루마운틴으로 향했다.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블루마운틴은 91종의 유칼립투스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분으로 늘 안개가 낀 듯한 푸른빛을 띠는데, 그 자체만으로 장

관이고 압권이다. 10,000m² 가파른 계곡과 폭포,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자연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코스는 한순간도 눈을 땔 수가 없었다.

블루마운틴의 또 다른 매력은 다양한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인데 가파른 산언덕 아래로 떨어지는 레일웨이, 재미스 벨리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웨이, 고요한 숲속의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워크웨이 등 취향에 맞는 어트랙션을 골라 즐기는 것도 해볼 만하다. 로라마이라는 곳에서 한적하게 식사를 마치고 페더럴동물원에 들러 코알라와 놀다 보니 벌써 호텔로 돌아갈 시간이다.

Sydney Tour 3

이제 시드니 동부를 둘러보는 일정이다. 1974년 개봉한 영화 <빠빠용>의 촬영지로 너무나 유명한 갭 파크는 호주 개척 시절, 영국 죄수들이 자살한 곳이라고 한다. 공원 한쪽에는 1857년 침몰한 영국 함선이 남긴 거대한 닻이 보존돼 있으며, 그때 함선과 함께 수장된 선원을 기리는 추모탑도 볼 수 있다.

아찔함을 뒤로하고 보이는 푸른 바다는 아침 햇살 속에 더욱 눈이 부시다. 웅장함과 비장함이 교차하는 순간, 스티브 맥퀸과 더스틴 호프만이 금방이라도 달려와 뛰어내릴 것만 같은 느낌. 제리 골드 스미스의 그 유명한 OST를 찾아 이어폰을 연결하니 감동은 배가 된다. '자유를 향한 마지막 날개짓'이라는 영화 <빠빠용>의 카피가 감미로운 음악 소리와 함께 내 귓전을 맴돈다.

자유를 뒤로하고 호주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서퍼스 파라다이스라고 불리는 본다이 비치로 향했다. 이곳은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으로 푸른 바다와 하얀 백사장으로 유명하다. 본다이 비치의 이름이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라는 뜻이라더니 유독 높은 파도가 눈에 들어온다. 그 파도 위로 건강미 넘치는 서퍼들과 해안선을 따라 조깅하는 사람까지 오버랩이 되니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하버브리지의 남동쪽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는 오페라하우스로 향했다. 이곳은 덴마크의 건축가 요른 웃손이 설계한 것으로 1973년에 완공되었다. 역동적이고 풍부한 상상력만큼 건축하는 데 여러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많았음에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개관 테이프를 잘랐다. 시드니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요트들의 돛 모양을 되살린 조가비 모양의 지붕이 바다와 묘한 조화를 이루며, 지금은 시드니를 상징하는 건물로 인식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공연 예술의 중심지로서 극장과 녹음실, 음악당, 전시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시드니심포니오케스트라, 오스트레일리아국립오페라단·무용단 등 여러 연극단의 본거지이다. 일몰 시간이 되자 석양과 함께 빛나는 오페라하우스의 그림자가 하버브릿지를 만나 오롯이 완전체가 된다.

Sydney Tour 4

가장 완벽한 장소에서 가장 완벽한 호주 현지인으로 살아보기로 했다. 내가 선택한 장소는 시드니 북부 해변이 끝나는 한적한 곳으로 긴 반도 끝자락에 있는 팜 비치다. 이곳이 완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광객들보다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휴식의 장소이자 최적의 피크닉 장소이기 때문이다.

시드니 시민에게 때로는 한강공원이고 때로는 남산공원 같은 이곳은 서핑, 조깅, 산책을 즐기는 이들로 늘 인기 만점인 곳이다. 산책로를 따라 오르다 보면 그 언덕 끝에서 유서 깊은 배런조이 등대와 등대지기의 오두막까지 북쪽 해안의 전경이 모두 내려다보인다. 전망을 찾아 준비해간 비치 타월을 깔고 간단한 스낵과 맥주로 세팅하고 못 다 읽은 책 한 권을 무심한 듯 놓았다. 바다 냄새와 파도 소리, 기분 좋을 만큼의 시원한 바람 그리고 향긋하게 올라오는 풀 냄새가 내 코끝을 귓속을 간지럽힌다. 나는 지금 여정의 절정을 맞는다. 여행의 산해진미를 맞는다. WIN CLASS



05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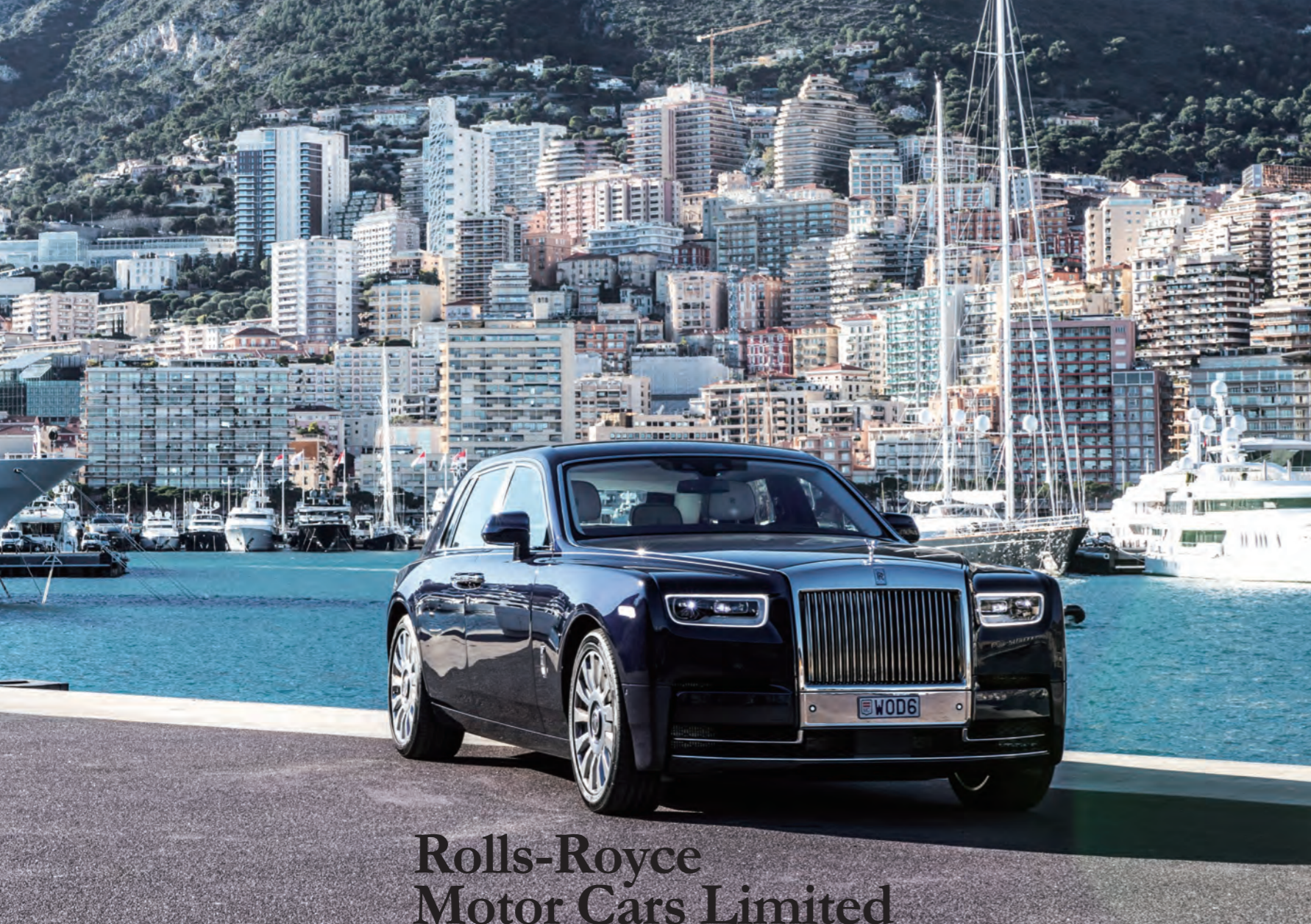
- 05 — 시드니 시내 남동쪽에 위치한 본다이 비치. 높은 파도를 즐길 수 있어 서퍼들이 선호하는 해변이다.
- 06 — 시드니에 있는 세계적인 예술 공연 장소, 오페라하우스
- 07 — 시드니 항만의 입구이자 바다로 뻗은 기암절벽의 절경이 아름다운 해안 공원 갭 파크
- 08 — 팜 비치는 시드니 북부 해변이 끝나는 곳에 있는 한적한 해변이다.



07



08



Rolls-Royce Motor Cars Limited

명차의 품격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 모두 창업주의 이름을 따서 만든 브랜드다. 또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만든 최고급 수제 자동차로 가격이 수억 원을 넘나들며 '황제의 차', '회장님 차'로 불린다. 그렇다 보니 공급량도 많지 않을 수밖에.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세계 3대 명차 브랜드를 소개한다.

Words 박영화

달리는 별장, 롤스로이스

'달리는 별장'. 차체가 견고하고, 빠른 속도에도 소음이 없어 차 안에서는 시계 소리만 들리며, 주행 중에도 커피잔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안정감과 안락함이 느껴져 롤스로이스에 붙은 애칭이다. 영국 왕실 의전차로 알려진 롤스로이스는 자동차 경주 선수로 유명한 찰스 롤스와 수제 자동차를 만들던 엔지니어 헨리 로이스가 함께 1906년 설립했다. 롤스로이스 자동차는 상위 1%만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수십 명의 손을 거쳐 탄생한다. 롤스로이스 자동차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 중 하나가 보닛 위 조각품이다. '환희의 여신상'은 여자가 날개를 펼치고 허리를 굽힌 모양의 조각품으로 롤스로이스의 상징이다. 1915년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기 시작한 롤스로이스는 1931년에 자동차회사인 벤틀리를 인수했다. 1949년 제트엔진을 개발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항공기엔진사업부에 집중했다. 또 1966년 군용기 엔진 제조업체인 브리스틀 시틀레이를 매수해 세계 2위 항공기 엔진회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1971년에 자금난을 겪으면서 파산했고, 그 후 롤스로이스는 영국 정부에 국유화되었다가 1973년 영국 엔진회사인 비커스에 매각되었다. 이후 1998년 비커스도 롤스로이스 자동차 부문의 매각을 결정하면서 결국 BMW가 인수하게 되었다.

럭셔리 절정, 벤틀리

벤틀리를 설립한 건 월터 오웬 벤틀리와 그의 형 호레이스 밀너 벤틀리다. 두 형제는 프랑스 자동차회사 DFP의 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했는데, 월터 오웬 벤틀리는 늘 자신의 이름을 내건 차를 만들고 싶어 했다. 그즈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항공기 엔진을 제작하게 되었고, 이 엔진이 호평을 받으면서 자동차 제작에 대한 자신감도 얻게 되었다.

1919년 벤틀리 형제는 벤틀리 모터를 설립해 첫 번째 모델인 '3리터'를 출시했다. 1924년과 1927년 르망 24 경주에서 우승 트로피도 거머쥐면서 럭셔리 스포츠카의 입지를 굳혔다. 1929년 경제대공황이 시작되면서 위기를 맞은 벤틀리는 1931년 롤스로이스에 인수되었는데, 롤스로이스도 1971년에 경영난을 겪으면서 비커스에 매각되었다.

벤틀리는 1980년에 생산을 시작한 '물산' 덕분에 자동차 회사로서의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물산은 만드는 데 총 300시간이 소요되며, 이 가운데 인테리어 작업에만 170시간이 걸릴 정도로 최고급 세단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1998년 비커스조차 경영난을 겪으면서 롤스로이스 자동차는 BMW에, 벤틀리는 폭스바겐에 각각 인수되었다. 벤틀리는 200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50주년을 기념해 리무진을 헌정했고, 2003년에는 '콘티넨탈 GT 쿠페'를 선보였다. 이후에 출시한 모델도 성공을 거두면서 벤틀리는 명성을 되찾아 갔다.

Bentley Motors Limited



Maybach-Manufaktur

세상에 하나뿐인 명차, 마이바흐

세계의 1%만을 공략한다는 벤츠 계열의 최고급 세단이 바로 마이바흐다. 통계적으로 마이바흐 차량 1대당 210개의 가죽 조각과 100여 개의 원목 장식이 들어가며, 옵션이 매우 다양하여 경우의 수를 따지면 약 200만 가지 조합이 나온다고 한다. 즉, 완전히 똑같은 마이바흐는 단 1대도 없는, 세상에 하나뿐인 차인 것이다.

사실 마이바흐의 시작은 자동차가 아닌 고성능 엔진 제조사였다. 창립자는 벤츠 탄생의 공을 세운 독일의 엔진 디자이너 빌헬름 마이바흐와 그의 아들 카를 마이바흐이다. 빌헬름 마이바흐는 1909년 아들 카를과 함께 초고성능 엔진을 제작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 마이바흐는 비행선과 전차 엔진을 생산하며 당시 세계 최고의 엔진을 제작하는 회사로 성장했고, 1919년부터는 자동차도 생산했다. 특히 1929년에 내놓은 'DS8 체펠린'으로 명성을 얻으면서 1930년대 마이바흐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세련된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의 영향 등으로 1941년까지 1,800여 대의 차량만을 생산하다가 단종되었다. 자동차사업을 접고 전차 및 군용 차량의 엔진을 제작한 마이바흐는 1960년에 다임러-벤츠에 인수되어 디젤 엔진을 생산했으며, 2002년에는 다임러 크라이슬러가 인수하면서 마이바흐의 부활이 선언되어 'Maybach-Manufaktur'라는 이름으로 60년 만에 새로운 차량을 선보였다. WIN CLASS



01

- 01 — playground - black
- 02 — Cutout - white2
- 03 — Doggie in the mirror
- 04 — Kitty in the mirror



02



03



04

너에게 물들다 생활에 녹아든 패턴

소파에 놓을 쿠션을 고르며 머리가 하얗게 변하도록 고민한 적이 있다. 과연 우리 집에 어울릴 것인가? “그냥 쿠션이 쿠션이지”하는 친구들의 핀잔에도, “모르는 소리 마”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쿠션 하나라도 집안의 분위기가 얼마나 많이 좌우되는지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패턴을 입은 쿠션은 김수지 작가에게도 다양한 생각과 고뇌의 산물이다.

Words 김준영 Artist 김수지(<https://koikoi-studio.com>)



김수지 패턴 디자이너

깊고 진한 개성을 가진 코이코이

작가의 어린 시절은 늘 그림과 함께였다. 김수지 작가의 어머니는 그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미술학원에 데려갔다. 미술을 하던 어머니 옆에서 계속 그림을 그렸기 때문인지 김수지 작가는 다양한 스케치와 색감에 자연스럽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디자이너 이외에는 다른 꿈을 꾀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확고한 생각으로 미래의 나를 그리는 작업을 해 왔어요. 머릿속의 모든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에 많은 매력을 느끼기도 했고요.”

손으로 입체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평면적인 그림에 더 큰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인지 패턴 디자인은 김수지 작가에게 운명처럼 다가왔다. 디자인학과에서 텍스타일(Textile; 공예미술의 한 종류로 수공예나 공업을 통해 천을 짜고 엮고 염색하거나 수를 놓는 것)을 전공하면서 흥미를 느낀 그녀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김수지 작가는 주로 인테리어 소품(쿠션, 러그 등)에 패턴을 표현한다. 최근 런칭한 Koikoi(코이코이)라는 브랜드도 대부분 인테리어 제품이 주를 이룬다. Koikoi는 ‘질다, 진하다’라는 일본어로 많은 사람에게 깊고 진한 인상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그녀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았다.

“작은 인테리어 소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 소품들은 자신의 취향을 은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아이템이죠. 게다가 저렴한 비용으로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거든요.”

거울 보는 반려동물의 뒷모습을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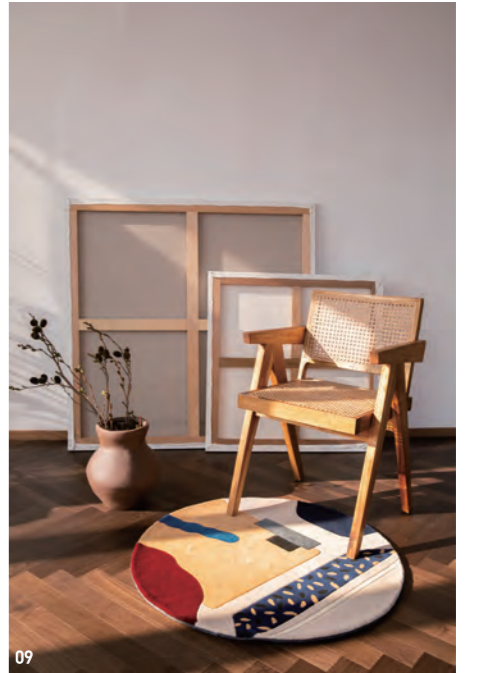
Koikoi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대중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것은 'Doggy in the mirror'와 'Kitty in the mirror' 시리즈 제품이다. 이 시리즈는 영문 그대로 거울 속 강아지와 거울 속의 고양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제품으로 특히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제품 이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입꼬리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만한 콘셉트이기 때문이다.

“거울에 비친 애완동물과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반려동물의 뒷모습을 그린 작품들은 Koikoi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감성과 위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반려동물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은 많지만, 다른 브랜드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반려동물을 표현하고 싶기도 했어요.”

김수지 작가는 어릴 적부터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웠다. 일상에 늘 함께였고 곁에서 사랑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녀의 감성을 고스란히 그림에 녹일 수 있었다. 사람과 동물의 교감, 그 따뜻한 눈 맞춤을 경험해 본 적 있는 그녀였기에 동물은 디자인 소재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 05 — Cutout - white1
- 06 — Silhouette3
- 07 — Silhouette2
- 08 — laundry rug
- 09 — playground - beige rug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찾는 특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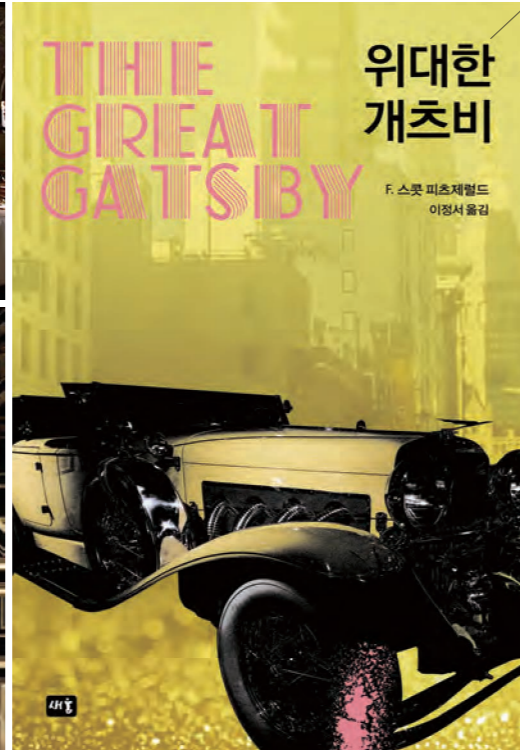
디자인에 대한 영감은 주로 일상에서 얻는다.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며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들을 보고 그녀는 생각에 빠진다. 그렇게 김수지 작가는 추상적인 패턴의 형태를 만들어 낸다. 'Daily scenery'와 'Daily objects'는 테이블에 놓인 꽃병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하고, 'Dog on the couch'라는 제품은 소파 위에 누워 있는 강아지를 단순화해 표현한 것이다. 매일 그녀는 똑같은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더한다. 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특별함을 찾아내는 것.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 볼 수 없는 감성,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는 디자이너의 눈일 것이다. 그렇게 김수지 작가는 끊임없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소재를 Koikoi스럽게 재해석하고 싶다.

“제가 가장 애정하는 제품은 'Laundry 러그'와 'Doggy in the mirror 쿠션'이에요. Laundry 러그는 빨래대에 걸려 있는 세탁물들을 형상화해서 디자인한 작품으로 Koikoi 특유의 색감과 일상에서 모티브를 얻는다는 콘셉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제품이에요.”

자신만의 색깔, 자신만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으로 하여금 누군가가 잠시라도 잊고 있었던 기억을 되찾거나 즐거움을 느낀다면 행복할 것 같다는 김수지 작가. 앞으로 그녀는 조금 더 부담 없는 가격대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Bath mat 제작을 앞두고 있다. Bath mat 컬렉션에서는 밋밋하지 않은 컬러 조합과 기하학적 도형의 배치, 또 여기에 Koikoi만의 위트를 더해보고 싶다. 이외에도 낮잠이불과 앞치마 같은 아동용 패브릭 제품과 쿠션, 옷, 애완동물을 위한 패브릭 제품을 제작할 계획이다.

대체 어떤 이유로 김수지 작가의 작품에서 이런 특별함이 느껴졌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그녀의 디자인이 우리가 늘 마주하는 평범한 일상에서 찾는 소재라는 것과 디자이너의 시선이 녹여낸 제품이 이렇게도 따뜻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WIN CLASS

낭만적 이상주의자의 환상, 그 너머의 사랑 위대한 개츠비



BOOK & MOVIE

시간의 굴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잊을 건 잊어야 한다.
그러나 강박에 가까울 만큼 과거의 시간에 매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국 작가 프랜시스 스콧 키 피츠제럴드의
자전적 소설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의 주인공 제이 개츠비는
그런 '과거집착형' 인물의 전형이다.

Words 김종면 콘텐츠랩 씨큐브 수석연구원, 전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지나간 사랑,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비극

개츠비는 피츠제럴드의 또 다른 자아(Alter Ego)다. 그런 만큼 개츠비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작가의 개인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츠제럴드는 지독한 가난 때문에 첫사랑인 지니브러 킹과 헤어졌다. 훗날 아내가 된 젤다 세이어로부터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한때 파혼을 당하기도 했다. 피츠제럴드가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로 한 달에 고작 90달러밖에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약혼을 깨버린 것이다. 그 같은 사랑의 곡절은 피츠제럴드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다.
개츠비의 불행은 과거에 대한 집착, 더 정확히는 지나간 시간을 원점으로 되돌려놓으려는 환상에서 비롯된다. 피츠제럴드는 지니브러 킹을 모델로 소설의 여주인공인 데이지 페이를 창조했다. 데이지는 옛 연인 개츠비를 버리고 속물근성으로 가득찬 부호 톰 뷰캐넌과 결혼해 '데이지 뷰캐넌'이 된다. 하지만 개츠비는 '구원의 여인' 데이지를 잊지 못한다. 개츠비가 주말마다 화려한 파티를 여는 것은 데이지가 한 번이라도 들려줄까 하는 바람 때문이다. 개츠비는 데이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소설의 제사(題詞)에도 나와 있듯 황금 모자를 쓰고 하늘 높이 뛰어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개츠비의 비극은 거기에 있다.



물신주의의 한 복판에서 공감 가는 스토리

소설의 시대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부터 미국이 경제적 풍요를 구가한 1929년까지, 이른바 '재즈 시대(Jazz Age)'다. '광란의 20년대(Roaring Twenties)'라고도 불리는 이 때는 미국식 신여성(Flapper), 주류 밀매점(Speakeasy), 단발머리(Bobbed Hair) 등으로 표상되는 혼돈의 시대이자 예술의 시대였다. '재즈 시대의 대변자'인 피츠제럴드는 당시를 미국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게 흥청거려던 시대로 묘사했다.
작가는 1920년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를 배경으로 무너져가는 '아메리칸 드림'을 그린다. 정신적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의 '미국의 꿈'은 영국 식민주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점차 변질돼 갔다. '현실적 물질주의자' 벤저민 프랭클린이 내세운 세속적 색채의 미국의 꿈 역시 빛을 잃어갔다. 데이지를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개츠비도

'낭만적 이상주의자'로 포장됐지만 부를 일구기 위해 조직 폭력배와 손을 잡는다. 일찍이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갈파한 '비치 고디스(Bitch Goddess)', 파멸이 빠른 세속적 성공의 신화가 현실이 된 것이다.

소설 속 다양한 인물 군상이 보여주는 재즈 시대의 환락과 향락주의, 도덕적 타락은 어쩌면 지금, 여기에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바벨탑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사하듯 우리는 물신주의의 한복판에 살고 있다. 1925년에 출간된 이 소설이 여전히 현재적 의미를 잃지 않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다.



무엇이 개츠비를 위대하게 만드는가

영화의 원작으로서 '위대한 개츠비'는 어느 소설 못지않게 영화계에서 탐내는 작품이다. 1926년 허버트 브레넌 감독의 흑백 무성영화를 시작으로 '앨런 레드 버전'으로 불리는 1949년작, 로버트 레드포드와 미아 파로가 주연한 잭 클레이튼 감독의 1974년작,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캐리 멀리건이 각각 제이 개츠비와 데이지 뷰캐넌 역을 맡은 배즈 루어먼 감독의 2013년 근작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영화화됐다.
1974년 제작된 '위대한 개츠비'는 미국 '논픽션 소설'의 대가 트루먼 커포티가 작품의 화자인 닉 캐러웨이를 남성 동성애자로 각색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결국 커포티는 해고됐고,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새로 각색해 마무리됐다. 이에 비하면 루어먼 감독의 '위대한 개츠비'에는 문제적인 요소랄 게 거의 없다. 원작에 충실하다.

개츠비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며 시간의 파괴적인 힘에 맞서 싸웠다. 그러나 치명적인 사랑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죽음을 맞는다. 개츠비의 장례식은 쓸쓸하기 그지없다. 생전에 그의 은덕을 입은 이들조차 죽은 개츠비를 외면한다. 개츠비의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친구 닉 캐러웨이는 상념에 잠긴다. 개츠비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데이지의 사랑을 얻기 위한 도구였음을 확인한다. 욕망이 들끓는 비루한 세상에서 순정한 사랑을 꿈꾼 개츠비를 마침내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한다.

어쩌면 개츠비의 믿음대로 사랑은, 아니 사랑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인지 모른다. 금방이라도 깨어질 듯 위태로운 환상이지만 그런 사랑의 경이마저 허용될 수 없다면 인간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은 더 황막해지고 비극에 가까워질 것이다. WIN CLASS

8월 자산시장 전망

주식시장

국내증시 전망

(단기전망) 우리나라 상장사의 12개월 예상 당기순이익 전망은 연초 155조 원에서 105조 원까지 하향 조정되고 있고 대내외 경제변수도 불안정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

(장기전망) 중국 경제부진, 일본과의 무역마찰 장기화 우려가 존재하고 금리 인하로 원화 약세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도 증시의 조정국면 연장이 예상됨

해외증시 전망

(선진국) 미·중 무역협상 장기화와 유로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주요 증시 흐름은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신흥국) 유가 하락으로 인해 신흥국 증시의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개혁안 통과로 국가 재정수지 개선이 기대되는 브라질 증시의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채권시장

국내 채권시장 전망

내수경기 부진, 반도체 가격 하락,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거시경제 불확실성도 높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국내 채권 가격의 강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

해외 채권시장 전망

미·중 무역분쟁과 유로존 지역의 경기부진으로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됨. 브라질, 인도, 중국 등의 신흥국가들도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글로벌 채권 가격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달의 추천펀드 ONE-PAGE 리포트(2019년 8월)

공격투자형 1등급

IBK골드마이닝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

공격투자형 2등급

한화글로벌리얼에셋
키움글로벌얼터너티브

적극투자형 3등급

IBK플레인바닐라EMP
이스트프링글로벌리더스
유리글로벌거대소
IBKKOSPI200인덱스

위험중립형 4등급

트러스트코리아외화채권UH
한국투자코스피솔루션
하나-UBS_PIMCO글로벌인컴

안정추구형 5등급

ABL_PIMCO글로벌투자등급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
NH-AMUNDI하나로단기채

안정형 6등급

우리하이플러스중단기채

■ 투자성향 ■ 펀드위험등급

판매사  **IBK기업은행**



I'm the ONE
i-ONE Bank

이 집 뱅킹 잘하네!



- 내맘대로 모을 수 있는 D-day적금
- 똑똑한 시금용비서 챗봇
- 흔들어 보내는 톡톡송금
- 안전하고 편리한 간편로그인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9-2308호(2019.05.10) 게시기한 : 2019.12.31 출금번호 : JPO61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가맹점점 또는 BK고객센터(☎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민연금 ☎330, BK기업은행 : ☎800-800-0100) BK기업은행은 금융회사를 받지 않습니다. 유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00, e-mail : bkrhcs@bk.co.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특별한 당신을 위한
IBK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WIN CLASS

최고의 품격, 최상의 자산관리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WIN CLASS 

IBK기업은행
WIN CLASS의
차별화된 서비스

- **Consulting** 최고의 자산관리 분야별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 **Portfolio** 고객님의 자산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 **Premium** 고객님의 품격 있는 라이프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와 경험을 선사합니다.

· WIN CLASS는 IBK기업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rivate Banking 브랜드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9-4077호 (2019.08.19) 게시기한 : 2020.08.31 출급번호 : EP261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 ☎1566-2566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과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융·항등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